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첫 갱신... 주거 복지 강화

2023년 계약 대상 최대 4년 연장
신혼부부 대상 24평 10호 신규 공급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목표
"지역 맞춤 지원 정책 확대 노력"

전라남도 화순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만원임대주택' 정책을 본격 확대한다.

화순군은 2023년 상반기 첫 입주 시작 '만원임대주택'의 계약 갱신이 시작됨과 동시에, 자녀 2명 이상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59.8㎡(24평형) 임대주택 10호를 신규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화순군의 강력한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만원임대주택'은 월 임대료 1만원에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복지정책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돼 왔다.

이번 계약 갱신 과정에서는 입주자 중 일부가 결혼하며 신혼부부가 된 사례도 나타났다. 이들은 기존 청

년 임대주택 입주자에서 '신혼부부형' 대상으로 전환된다.

화순군은 지난달 7일부터 13일까지 1차 입주자들에게 대한 자격 검토를 실시했으며, 이직에 따른 전출,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소득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총 12명이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화순군은 이들에게 개별 안내와 함께 재계약 불가 사유를 상세히 고지하고, 타 주거 지원 정책을 안내할 예정이다.

신규 공급되는 24평형 임대주택 10호는 자녀 2명 이상을 둔 신혼부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로, 지난달 19일부터 2주간 수요조사 결과 9세대가 오는 7월 이주를 앞두고 있

다. 남은 1호는 신규 신청자 중 2자녀를 둔 신혼부부에 우선 배정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화순군 만원임대주택은 청년에게는 자립 기반을, 신혼부부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김선중 기자



농업인 대학 스마트 농업반 운영 나주시, 농업 인재 양성 본격화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10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관에서 '2025년 나주시농업인대학 스마트농업반' 개강식을 열고 스마트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스마트농업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 인력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하고 기상이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작물의 생육환경을 최적화로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나주시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스마트 농업반을 개설하고 교육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 운영, 데이터 기반 작물관리, 자동화 시스템 등 실제 농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이 약 6개월간 19회에 걸쳐 80시간 진행된다.

올해 교육생은 청년 농업인을 위주로 33명으로 구성했으며 오는 11월까지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병행하며 스마트 농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교육과정 소개와 함께 농촌진흥청 전문가를 초청해 스마트팜 시설 유형 및 설계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나주시는 지난해부터 스마트팜TF팀을 신설해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확대 보급 사업, 스마트농업 기반조성 및 보급확대 사업, 첨단 자동화 시스템 기술확산을 위한 스마트농업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농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미래 농업을 선도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스마트농업은 농업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노동력 부족, 기후 변화 등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나주시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나주=김용의 기자



함평군이 최근 산불 피해지역에서 벌채된 나무를 재활용한 톱밥 116톤을 관내 축산농가에 무상 공급했다.

함평=김재국 기자

함평군, 산불 피해목 재활용 축산농가 톱밥 무상 지원

전라남도 함평군이 산불 피해지역에서 벌채된 나무를 재활용한 톱밥 116톤을 지역 축산농가에 무상 공급하며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섰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2023년 4월 대형 산불 피해지역에서 벌채된 나무를 활용해 생산한 톱밥 116톤을 최근 지역 한우농가 180가구에 무상 지원했다.

톱밥은 2024년 하반기에 벌채된 38ha 규모의 산불 피해목을 가공해 제작한 것으로, 함평군축산관련단체협의회를 통해

축산농가에 배부됐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수집한 산림부산물을 활용해 펠릿 100톤을 공급한 바 있다.

군은 산불 피해목 무상 벌채 및 자원재활용을 통해 축산농가의 사육 환경 개선은 물론 예산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함께 기대하고 있다.

군은 산불 발생 지역에 산수유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어 산림을 회복하는 한편

관광 사업 자원화에도 힘쓰는 등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은 "산림부산물과 재난 피해목 등을 활용해 축산농가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며 "나무심기 확대와 함께 산불 피해목 톱밥 공급 등 임업자원 활용을 통한 다각적인 농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장성군,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해지

전라남도 장성군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고령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11일 장성군에 따르면 기간은 2026년 5월31일까지며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제

3자에게 대인·대물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사고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본인부담금은 보장금액의 0.1%인 최대 3만원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전동보조기기를 운전한 당사자(피보험자)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장성군은 2023년 6월부터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왔다. 보험금 청구 및 절차에 대한 문의는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장애인과 고령주민의 이동권 향상과 사고 발생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무더위 대비 하절기 방역 강화 영광군, 감염병 예방 총력 나서

전라남도 영광군은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 감염병 예방과 해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절기 집중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하절기 방역은 6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되며 모기, 파리 등 위생해충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에 맞춰 군 전역에서 체계적인 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인구 밀집 지역, 물 웅덩이, 하수구, 하천변, 축사 및 공원 등 취약 지역 1378개소를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선제적 방역에 나선다.

영광군 보건소는 6월부터 10월까지 주 5회 이상 정기 방역을 실시하며 접근이 어려운 방역 취약지의 사각지대에는 주 2회 유충 구제를 실시하고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야간 성충 구제를 주 3회 시행하는 등 하절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방역 차량을 활용한 연무, 연막 소독과 함께, 휴대용 방역장비를 이용한 수동 방역, 유충 서식지 제거 활동을 실시하며 군민의 자율 방역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살충제, 유충구제제 등의 방역 물품을 무료로 배부하고, 올바른 방역 요령 교육과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영광군 보건소 관계자는 "하절기 방역은 감염병 예방의 핵심이다"며 "주민 여러분께서도 정기적인 집 주변 정화, 쓰레기 분리배출, 고인물 제거 등 일제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화순군, 청춘신작로 버스킹 내일 오후 6시 어울림광장서

전라남도 화순군은 13일 오후 6시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에서 6월 첫 번째 버스킹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서울, 경남 사천,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총 5개 팀의 아티스트가 출연해 △에너지 넘치는 노래를 들려줄 '블루퍼피' △아름다운 선율의 바이올린 연주 '소리엘' △역동적인 스트릿댄스를 선보일 '엠브리오' △대학생 퓨전국악 팀 '이유' △첼로 연주자 '조운유(개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청춘신작로 버스킹은 오는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정기적으로 열리며 화순군은 이를 통해 청춘신작로 일대를 일상 속 문화공간이자 세대를 잇는 열린 무대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청춘신작로 버스킹은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친구, 연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 행사다.

화순군은 앞으로도 청춘신작로 버스킹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젊은 예술가들의 무대가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문화 확대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많은 군민이 버스킹을 즐기며 일상의 여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